

“카드 안 돼요”... 대학 기숙사, 154곳 ‘현금 일시불’만 받아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 50곳 수준
수수료 때문 기숙사비 오를 가능성
정부, 카드납부·현금분납 등 노력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은 오로지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가 더해져 기숙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분할이나 카드 납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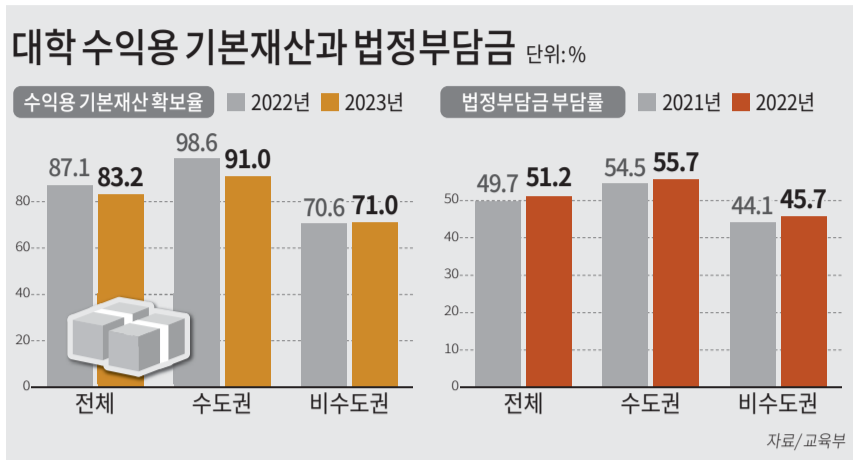
또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대학 2곳 중 1곳이 그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2개 4년제 대학 기숙사 중 61.1%인 154곳이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63.1%던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대학이 오직 ‘현금 일시 납부’로만 기숙사비를 받고 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0개교로 전체 19.8%를 차지했으며, 현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기숙사는 76곳(30.2%)에 불과했다.

전문대 기숙사는 ‘현금 일시불’ 비율이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았다. 전체 124곳 중 79.8%인 99곳이 현금만 받고 있으며, 지난해 97곳에서 올해는 2곳 더 늘어난 수치다.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수수료가 더



해져 기숙사비가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드로 납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가 1.5% 정도 기숙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대학에) 영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0.5%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분납 활용률이 낮은 것은 학생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카드 납부나 현금 분납 방식을 독려하지만, 아직 현상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23%던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로 2021년보다 1.5%p 늘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법인이 그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납부할 때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대응 및 여파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마저 대학 본부가 부담하고 있던 셈이다.

사학법인의 대학 지원 원천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은 83.2%로 87.1%던 2022년보다 3.9%p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한 해 사이 7.6%p 하락해 91%를 나타냈다. 단, 비수도권 대학은 71.0%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 수가 말하는 강의 비율은 4년째 감소했다.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8%로 지난해 2학기(65.9%)보다 1.1%p 낮아졌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2019년 67.8%에 이어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를 기록하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 하남~이천 ‘봉화길’ 이달 11일 개통

‘개통식 및 걷기축제’ 경기 광주시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가 11일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하남부터 이천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옛길 봉화길’ 개통식을 연다.

앞서 도는 2013년부터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옛길’을 조성 추진, 지난해 10월 모두 복원한 바 있다.

도는 경기옛길이 도민의 여가 활동처로 관심을 받음에 따라 경기옛길 육대로와 별도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보 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추진돼 이번에 개통하는 봉화길은 조선시대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구획하고 있는 한양과 지방을 연결한 10대로 중 봉화로(奉化路)를 기반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했다.

당시 봉화로(奉化路)는 조선시대에 수도인 한양에서 광주, 이천, 충주를 지나 태백산 사고(太白山史庫)가 있던 경상도 봉화 지방을 연결하며, 역대 조선 왕조의 실록(實錄)과 왕실족보인 ‘선원보’(璿源譜)가 옮겨지던 길이다. 노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고 기복이 적고 장애물이 없어 ‘소의 이동’이 보장되는 우로(牛路)로 활용되기도 했다.

도가 복원한 봉화길은 하남~광주~여주~이천을 지나며, 길이는 138km에 달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이천 의병전적비, 설봉공원, 영릉, 설성산성 등 다양한 명소를 품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ASCN’ 개최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와 공동 주관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는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와 오는 3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 일원에서 아시아지속가능캠퍼스(ASCN 2023)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ASCN 2023은 고려대 KU-KIST 에너지환경대학원·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 주최, 지속발전연구소,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태국 등 4개국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캠퍼스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된 네트워크로, 지난해 일본에 이어 올해는 고려대에서 열리게 됐다.

올해 행사는 한국, 일본, 태국 등 약

70여 명의 학생, 교직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은희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이사장의 개회사, 김동원 고려대 총장의 축사,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두고 각 기관 대표의 성과 발표와 토론, 학생들의 경진대회로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흥승관 고려대 KU-KIST 에너지환경대학원·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장은 “최근 들어 더욱 주목 받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맞는 대학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 출근길 ‘동행버스’ 노선 4개 추가

이달 6일부터 노선 운행 다각화
“노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11월 6일부터 맞춤형 출근버스인 ‘서울동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화성 동탄~강남역(서울01번), 김포 풍무~김포 공항역(서울02번) 두 개 노선에서 서울동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이용자 1만여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에 힘입어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추가하는 노선은 ▲ 파주시 운정지구를 출발해 합정역을



서울동행버스. /서울시

거쳐 흥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서울03번’ ▲ 고양시 원흥지구에서 시작해 화천역(항공대학교 동문)과 고양시 덕은지구를 지나 가양대교를 건너 가양역까지 가는 ‘서울04번’ ▲ 양주시 옥정지구를 출발해 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서울05번’ ▲ 광주시 능평동에서 시작해 강남역까지 가는 ‘서울06번’ 총 4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동행버스 중 간선버스 요금 1500원을 적용받는 서울02번(김포시 풍무동~김포공항역), 서울04번(고양시 원흥지구~가양역)과 서울05번(양주시 옥정지구~도봉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03번(파주시 운정지구~흥대입구역)과 서울06번(광주시 능평동~강남역)은 서울01번(화성시 동탄~강남역)과 동일하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으로, 서울시 광역버스 요금 3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늘의 날씨

11월 1일 (수)
음력 : 9월 18일

수도권 날씨
15 ~ 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 서울 15/22, 인천 17/21, 수원 16/21, 평택 13/22, 파주 14/22, 양평 12/21, 양주 14/22, 가평 12/20, 연천 14/21, 동두천 14/22, 백령도 16/20, 용인 16/21

해돋이 / 06:56 | 해질 / 17:3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도, “G20 정상회의, 11월22일 화상으로 개최”
▲중동 주둔 미군·연합군, 17~30일 23차례 공격받아 /사진 뉴시스

▲美 “지금 휴전은 하마스 이득”... 北→하마스 지원 견제도
▲세계은행 “이·팔 전쟁 등으로 유가 157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일본은행, 2023·24년 물가전망 상향 조정 ‘모두 2.8%’ /사진 뉴시스
▲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준비 시작